

OK JOURNAL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통합대회
특|별|호| 2017년 봄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개최도시

HOST CITY FOR ICE SPORTS GANGNEUNG

강릉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 2. 9 ~ 2. 25 (17일간)

- 95여 개국 12개 경기장 15종목 102개 금메달 5만여명 참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3. 9~3. 18 (10일간)

- 45여 개국 5개 경기장 6종목 80개 금메달 3천여명 참가



CONTENTS

APRIL 2017 www.okja.org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통합대회 특별호

NEWS

- 04 역사적 통합의 '첫 발'을 내딛다!
- 07 최성 시장 "고양시 실리콘밸리 추진"
- 08 재외선거 앞둔 각당의 재외동포 정책은?
- 10 전략적 인재양성 국가 연구소, UST
- 12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만장일치 대통합"
- 14 갈등과 분열 9년의 종식 '세언협'으로 다시 태어나다

INTERVIEW

- 16 "쉽지 않았던 통합, 양보와 이해가 이룬 성과"



- 19 세언협으로 통합을 이끈 주역들, 통합추진위원회
- 20 세계한인언론인들, 솔향의 도시 강릉을 가다
- 22 세언협 언론인대회 화보



- 26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평창을 만나다!
- 27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 28 OKTA, 한인경제인 대회 고양시에서 개막
- 30 "12인의 독수리, 공동취재단 활약 빛났다"
- 31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재외동포정책 결의문

OK JOURNAL

창간일 2017년 4월21일

발행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퍼낸곳 공동취재단

퍼낸이 이석수

편집장 최윤주

편집위원 김종민

배영훈

취재기자 김명곤

김상욱

다니엘오

신성철

이경욱

정선

영상기자 김길수

안미향

주소 100-101 서울 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건설회관 700호

전화 02-722-5599
070-8846-9646

이메일 francezone@gmail.com (이석수)
okjakorea@naver.com (사무처)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150여개의
해외 한인 매체가 참여하는 언론단체입니다.
Copyright(C) Overseas Koreans
Journalist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17일(월) 오후 6시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 세계 재외 한인언론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화합과 단결을 향해 질주를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역사적 통합의 '첫 발'을 내딛다!**

17일(월) 재외한인언론인대회 본격 개막... 8년만에 한 자리 '뜻깊은 대회'
통합선언에 귀추 주목 ... 재외 한인 언론의 화합과 역량강화의 분수령

개막식 | 2017. 4. 17(월)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가 본격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한인언론 단체의 양대산맥으로 활동하며 각각의 행사를 치러왔던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이하 재언협)와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연)가 통합을 전제로 8년만에 함께 치르는 공동대회다.

재언협과 세한연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언론인회와 (사)아시아 기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16일(토)부터 22일(토)까지 서울과 대전, 강릉과 평창의 일정을 소화하며 '재외한인언론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17일(월) 오후 6시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 세계 재외 한인언론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화합과 단결을 향해 질주를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단결로

개회사를 통해 공동대회 개최과정을 설명한 세한연 전용창 회장은 “세계한인언론은 남북한 인구의 10%에 달하는 세계한인들에게 고국의 소식과 한인사회 정보를 전해주는 소통의 창구인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의 소중한 자산인 세계 한인들의 첨병”이라며 한인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대회장인 재언협 김소영 회장은 “세계 속의 한인 언론인들이 통합된 하나의 단체로서 재도약하는 의미있는 대회”라고 규정하며 “화합과 단결로 재외한인 언론의 역량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각 정당의 동포정책과 재외한인 언론 진흥방안 모색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존재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회, 정치권 축하 줄이어

개막식이 열린 17일(월)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운동 개시일. 재외국민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28개국 48개 도시에서 90명에 달하는 재외한인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대표를 비롯해 국민의 당 안철수 선거운동캠프의 송금주 수석 대변인,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김성곤 이사장은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화합의 물꼬를 튼 공동대회에 축하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동대회 개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뉴스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 언론에 감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재외한인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는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도 두드러졌다.

9년간의 갈등 봉합... 화합의 물꼬 튼 공동대회에 관심 집중
추미애 대표 등 각당 관계자 참석... 화합과 단결 돋보인 대회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위로 대통령 선거가 급박하게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3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율을 기록한 것은 조국의 위기에 공감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길을 트기 위해 나선 애국심의 발로”라며 “720만 재외동포가 자랑할 수 있도록 가짜 아닌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회 개최를 환영하고 통합을 통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 줄 것”





을 당부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재외동포청 설립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조선족과 고려인의 처우 개선 등 3가지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선거캠프 송금주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불거진 좌우논쟁,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라며 “양 단체가 통합을 위해 공동대회를 이뤘듯이 새 지도자가 대한민국도 새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명현 국민의당 재외국민위원장,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홍태 연합뉴스 코리아 글로벌센터 본부장, 김송희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김소희 세계한인여성협의회 대표총재, 박다이아나 세계문화협회 회장, 이향숙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등 국제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통합을 전제로 개최된 공동대회

한편 이날 대회에는 2002년 한국기자 협회장으로 재외동포 기자 초청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아시아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이 참석, 역사적 개최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이상기 회장은 이번 대회를 화합과 단결의 앞글자를 따 ‘화단’에 비유하며 “공동대회로 화단을 잘 세웠으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잘 가꾸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걷는 기자정신이 뿌리가 되고, 재외동포 혐의체를 만들기 위해 흘려왔던 땀과 눈물이 모여 화단을 이뤘다”며 “후배들을 위해 피땀을 아끼지 않는 상머슴이 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부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2002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재외동포기자 초청대회’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독자 구성됐고 2010년 4월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출범해 지금까지 별도의 행사를 치러왔다.

이번 대회는 2016년 가을대회가 끝난 10월 17일, 양측에서 선임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 7개항으로 이뤄진 통합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개막식 | 2017. 4. 17(월)

최성 시장 "고양시 실리콘밸리 추진"

고양시 거점에 통일 한국 실리콘 밸리 프로젝트 추진
2022년까지 5조원 투자,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고양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실리콘 밸리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가 개막한 지난 17일(월), 대회장을 찾은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주요 거점 지역에 남북한 경제 협력의 교두보를 세우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과 실리콘밸리라는 두 개의 주춧돌을 세워 통일 한국의 성장동력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원을 들여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추진 중이다.

통일 후 남과 북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정학적 위치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남북경제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밑그림이다.

이날 설명회를 직접 진행한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통합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방송, 영상, IT, 첨단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지식산업을 이끄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세계 한인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가 개막한 지난 17일(월), 대회장을 찾은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주요 거점 지역에 남북한 경제 협력의 교두보를 세우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18일(화) 열린 개막 심포지엄에는 대선 후보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재외선거 앞둔 각당의 재외동포 정책은?

대선후보들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공약, 재외동포언론인들 반응은 '냉랭'

개막 심포지엄 | 2017. 4. 18(화)

재외선거를 1주일 앞둔 18일(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일부 재외한인언론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 둘째날 오전 행사인 '재외한인 언론진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선후보의 정책 담당자들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콘트를 타워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 설립이 절실하다"며 "재외한인 언론들이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선

시기를 적극 활용하면 재외동포청 신설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강원도 인구의 5배 규모인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처'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어야 한다"며 "12개 부처에 산재한 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처'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형 국민의당 특보는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 각 부처가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 정책을 펴나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 당은 재외동포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재외한인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더불어민주당) △복수국적 대상을 현행 65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자유한국당) △재외동포 2세의 군복무 대체 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 채택(국민의당)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패널로 나온 김원일 러시아 모스크바뉴스프레스 대표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며 “재외한인언론 지원 관련 범규정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중 필리핀 뉴스게이트 대표는 “그동안 재외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 관련한 요청과 약속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정훈 코리안 위클리 대표는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해외동포청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재외한인언론인협회 차원에서 네이버와 포털 운영 협력 추진”

한편, 앞서 이날 열린 ‘재외한인을 위한 포털 운영의 타당성’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한인 언론사와 제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재언협 회장은 “네이버와 재외한인 언론사들과 포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회 사무처에 제안과 문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신성철 기자





UST 방문 | 2017. 4. 18(화)

과학기술 연구의 산실, 전략적 인재양성 '국가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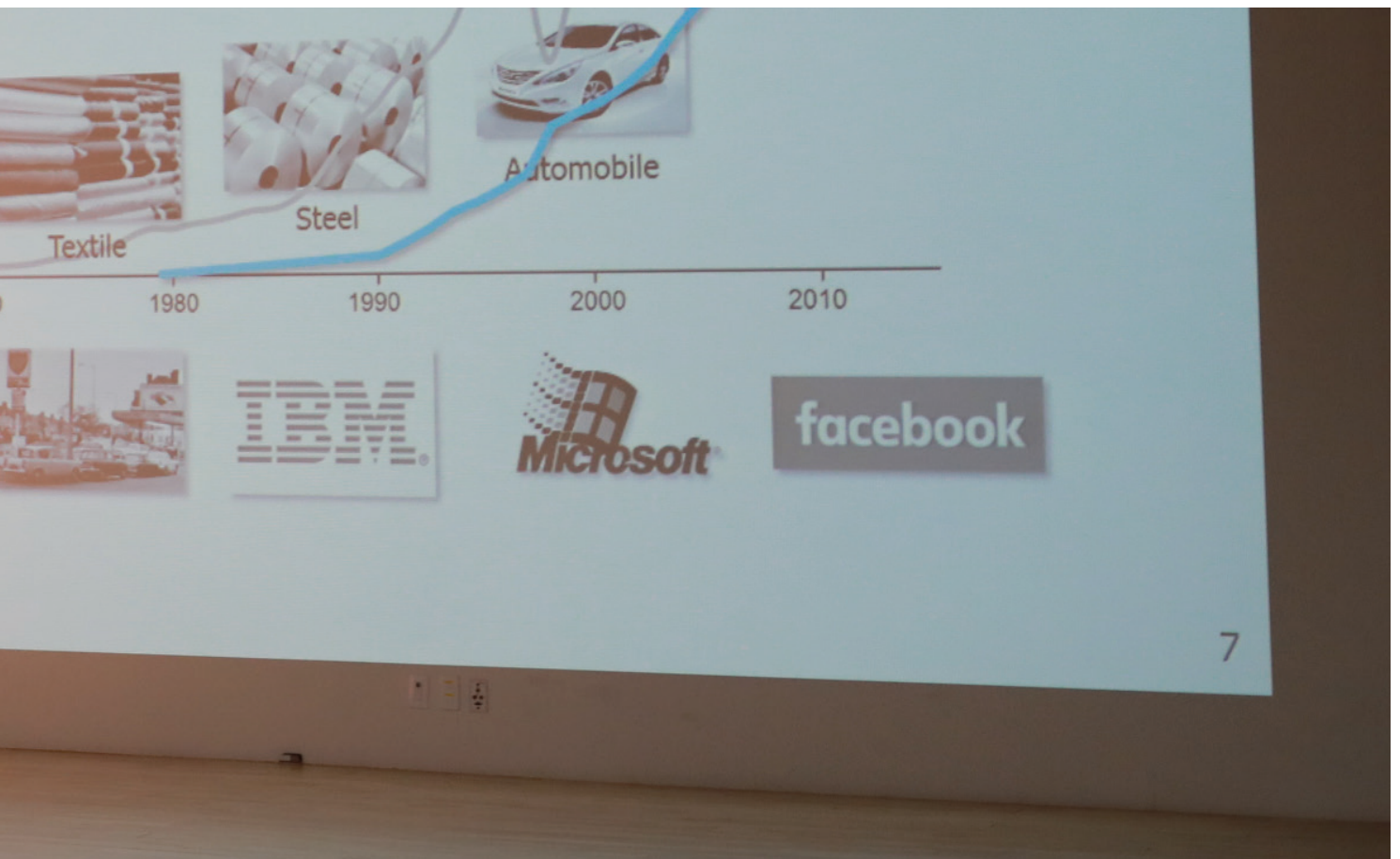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참가를 위해 고국을 찾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용창)·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김소영) 소속 재외 언론인들은 18일(화) 오후 대전에 위치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 총장 문길주)에 방문했다.

문길주 UST 총장은 재외 한인 언론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 'Future is Education, Education is Future'(미래는 교육이 좌우하고, 교육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총장은 강연에서 한국과 과학기

술이 발전한 나라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방식, 정책·발전과정 등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한국 과학기술의 현주소 점검은 물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했다.

이어 문 총장은 "UST는 2003년에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에 대학원 기능을 부여해 국가 전략 분야의 고급 R&D 석·박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이라고 교육기관을 소개한 후 "UST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프로우드(PROUD) UST'라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전문성(Professional), 독자성



(Unique), 차별성(Different)을 갖춘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갑동 UST 대외협력처장은 “UST는 한국 우수인재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히, 해외 한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 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로 양성하는 ‘영 브레인 리턴’(Young Brain Retur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회협력처장은 또 “본 대학원의 강점 중 하나는 재학생 전원이 국비

장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라며 “실력과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재외 언론사 대표는 “한국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해외 명문대학이나 대학원을 선호하던 학생이나 학부모가 많았던 만큼 한국 대학들도 한국 대학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많은 외국인

과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 대학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UST는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교육기관으로서 대전에 대학본부가 위치해 있다. UST는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17년 전기 현재까지 총 1665명의 박사, 석사를 배출했다. UST 졸업생들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 국방과학연구소 등 출연연을 비롯해 공공기관 연구소, 대기업 연구직에 취업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경옥 기자



4월 19일 천안 국학원에서, 9년만에 통합대회로 열린 제16회 재외한인 언론인대회에 참가한 61명의 회원들은 통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외언론인 대통합을 이뤄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만장일치 대통합"

양대 동포언론단체 통합으로 한인동포사회에 귀감

총회 | 2017. 4. 19(수)

최대 동포 언론단체인 (사)재외동포 언론인협회와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이겨내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로 통합을 선언했다.

4월 19일 천안 국학원에서, 9년만에 통합대회로 열린 제16회 재외한인 언론인대회에 참가한 61명의 회원들은 통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외언론인 대통합을 이뤄냈다.

총회에 앞서 양 단체는 18일 오후 각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회 현안 의제를 결의하고, 19일 협회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세언협 총회에서 회원들은 대회 공동대회장인 김소영 회장과 전용창 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창 공동대회장은 “양 단체가 통합으로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 회장은 또 “김소영 회장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회원 모두가 동의하고 허락해 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공동대회장도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세언협 출범을 자축한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과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통추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 냈다”면서, “앞으로 동포 언론인다운 역할을 찾아보고 후배 언론인에게 보람된 단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략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

된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반대없습니다”로 통합 및 정관개정 그리고 단체명 변경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소영)와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용창)는 8개월 전부터 각자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에 세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각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해 왔다.

두 단체는 통추위에 통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에 탄력을 받아 공동개최라는 큰 결실을 이끌어 냈다.

이에 통추위는 “이번 대회를 놓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공동운명체 위기 속에서 끝장내기에 돌입했고, 양 단체 통추위 6인은 가칭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를 정하고 정관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한 정관에 따르면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약칭 세언협)로 칭한다”며, “협회는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과 상호협력, 해외 언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제16회 재외한인 언론인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양대 언론단체가 통합으로 재외동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간 한인 동포사회 단체들에 분열과 갈등으로 한인동포에 눈총을 받아왔다”면서 “한인사회 통합과 발전에 배려와 양



최대 동포 언론단체인 재언협과 세한언이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이겨내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통합을 선언했다. 사진은 총회 모습.

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언협은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각국에서 보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체로 유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매체사와 기사는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로 역사적 대통합이란 큰 성과를 이뤄낸 제16회 재외한인 언론인대회는 지난 4월 16일(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공동취재단] 정선 기자



총회 | 2017. 4. 19(수)

총회 참관기

갈등과 분열 9년의 종식 '세언협'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제 재외언론인 단체는 ‘화단’을 가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을 주는 일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09년 봄대회부터 서로 갈라져 따로 따로 대회를 치러왔던 두 재외언론인단체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개최한 통합 대회에서 국내 정계 및 언론계 초청인사들이 한결같이 토한 축사의 일성이다. 전초부터가 무척 좋았다.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대전, 천안, 강릉 등지에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 회장 김소영)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언, 회장 전용창)가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내걸고 개최한 2017 재외언론인 대회는 시종 신뢰의 분위기가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결국 마지막 결림돌도 거뜬히 치워내며 소망하던 열매를 일궈냈다.

갈라지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합치는 것은 그보다 몇 배나 어렵다는 것을 재외언론인들은 익히 경험해온 터였다. 모두가 원했던 통합은 파열음으로 상처가 깊었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오고야 말았다.

마치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새 나라를 여는 단초가 된 것처럼.

19일 오후 5시 45분 충남 천안시 목천읍 국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총회는 61명의 세한언과 재언협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대통합을 결의, 일각의 회의와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지난해 10월 가을대회 이후 양측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물밑 대화를 통해 통합을 진행해 온 지 6개월만의 열매이다.

정략석 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통합총회는 ‘총회’라기 보다 기왕에 합의된 통합 내용에 대한 ‘설명회’에 가까웠다. 긴긴 갈등의 세월 후 내려진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7년 4월 19일자로 두 단체가 세계한인언론인협의회(약칭 세언협)이라는 새이름으로 완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김소영 재언협 회장과 전용창 세한언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며, 임기는 2018년 가을 대회까지 하기로 한다.’

이날 총회 결의는 통합을 전제하고 양측 각각 3명씩 6명의 통추위원들이 대회 하루 전부터 모여 두 차례의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정비한 새 정관과 양측의 ‘공동회장’ 타협안의 일괄 타결이 가져온 결실이다.

**정관 일부 조항 수정은
‘통합 후’ 적절한 시기에**

하지만 이같은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두 단체는 하루 전인 18일 오후 6시 각각 별도로 가진 통합 토론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세한언은 통추위 제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재언협 측은 공동회장의 임기(잔여임기 1년 반)와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5천불) 조항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거져 나와 일대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이어진 토론에서 공동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으로 하고, 공탁금을 낮추는 안을 비롯한 몇몇 조항들을 보완 수정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에서 ‘통추위에 일임하기로한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재수정안을 만들어 수요일 오후에 있을 통합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재언협 회원들은 재수정안을 만들 5명의 태스크 포스 팀을 추천 및 자원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세한언
통추위 측이 '통추위 위임 결의사항을
존중해 달라'며 난색을 표한다는 소식
이 들려왔고, '통합이 어긋장 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일부 회원들 사이에
서 돌기 시작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20여 명의 재언
협 회원들이 만찬 이후 식당 별실에
서 임시 토론회를 열고 당초 통추위
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합의가 이뤄
졌다. 미비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회칙
조항들은 일단 통합이 이뤄진 연후에
기회를 갖고 차차 고쳐나갈 수 있다
는 전제가 깔린 재결의였고, 변호사가
총회 현장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기로
되어 있는 다음날 일정을 고려한 조
치였다.

이후 양측 통추위원들은 두어 차례
의 구수회의를 통해 '통합이 우선'이
라는 대의를 따르자는 재합의가 이뤄
졌고,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 총회에
서 전영창-김소영 공동회장은 통합
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영창 공동회장은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말을 잊지 못했고, 김소영 재언
협 회장은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새
역사를 써 나가자며 대통합의 말미를
장식했다.

9년의 분열과 갈등을 불식하고 통합
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은 11분으



로 충분했다. 이번 대회는 '아무것도
아닌 분열'이 얼마나 재외언론인들을
옥죄어 왔는지, 화해와 단결의 소망이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한 대회였다.

회원들은 서로 깊은 악수를 청하며
감격스러워 했고, '남과 북의 통일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덕담들이 총
회장을 메아리쳤다.

[공동취재단] 김명곤 기자

9년의 분열과 갈등을 불식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은
11분으로 충분했다.

이번 대회는 '아무것도 아닌 분열'이
얼마나 재외언론인들을
옥죄어 왔는지,
화해와 단결의 소망이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한 대회였다.

| 특별인터뷰 |

“쉽지 않았던 통합,

양보와 이해가 이룬 성과”

대통합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해외한인 언론단체의 양대산맥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언)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가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단체로 탄생했다. 9년만에 이룩한 대통합의 역사다.

대통합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해외한인 언론단체의 양대산맥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언)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가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단체로 탄생했다. 9년만에 이룩한 대통합의 역사다.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두 개의 단체가 하나의 합을 이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조직별 주관과 성격이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언론단체 간의 통합은 어느 조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산재하다.

재언협과 세한언의 통합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그 누구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입기관의 성격, 통합단체의 이름, 통합 조직의 구성, 통합을 대하는 회원들의 각기 다른 시각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다뤄지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들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산등성이처럼 지난 6개월간 통합 추진위원회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지난 19일(수), 두 단체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었던 대통합의 터널을 빠져 나와 마침내 하나가 됐다.

그 중심에 세한언 전용창 회장과 재언협 김소영 회장이 있다. 이번 통합은 2016년 4월 선출된 김소영 회장이 같은 해 10월 법적 분쟁을 마치고 전용창 회장 체재로 조직을 재정비한 세한언에 통

합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새롭게 출범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의 공동회장에 이름을 올린 김소영, 전용창 회장을 만나본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

(전용창. 이하 '전') 태국 방콕에서 30여년간 사업을 해왔고 교민 광장이라는 잡지를 격주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이하 '김')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앙일보를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10년만에 세계한인언론단체의 대통합을 이뤄냈는데 소감이 어떤지.

(전) 쉽지 않은 통합이었다.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회장과 더불어 여러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서로 양보한 결과 통합이라는 성과물을 낼 수 있었다.

(김) 전용창 회장님께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통합이 가능했다. 이해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통합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김) 2016 가을대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은 것이 '통합'이었다. 언론인 단체의 양분은 모범적이지 않을 뿐





더러 대내외에 언론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2016년 세한언 가을대회가 열릴 당시 재언협 임원진이 ‘통합추진’을 타진하고자 대회장을 찾았고, 세한언 쪽에서도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이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전) 그간 세한언은 내부조직의 균열을 겪으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작년 가을대회 때 세한언을 찾은 재언협 임원진으로부터 ‘통합’의사를 전달받았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임하게 됐다

통합과정이 수월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김) 양분된 시간만큼 열키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게 제일 어려웠다. 하나를 매듭지으면 다른 하나를 풀어야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쉽지 않았던 통합,

양보와 이해가 이룬 성과”

대통합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해외한인 언론단체의 양대산맥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연)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가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단체로 탄생했다. 9년만에 이룩한 대통합의 역사다.

어 나가자 통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전) 한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게 마련인데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추위 위원들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응원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니 불가능할 것 같던 통합이 성공적으로 성사됐다.

공동회장이라는 과도기적 방안을 채택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김)사업도 동업을 하면 힘들다는 말이 있지만, 각자의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예를 들어 전화장님께서서는 대외적인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저는 회원들의 소통과 내실을 기해 세언협의 역할과 성장을 담당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사실 처음에는 단독회장이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합과정을 진행하면서 두 회장의 연합된 힘이 더 큰 추진력과 더 넓은 포용력을 갖는다는 걸 경험했다. 공동회장을 통해 상호간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언협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양 단체 모두 언론단체로서의 완벽한 틀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을에 열릴 행사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도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이고 전 세계 곳곳에 포진한 한인 언론사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한인 언론인 양성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세언협이 담당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전) 산적한 문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의 의존도를 줄이는 일이다. 협회의 재정자립을 꾀하고 회원사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업모색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상생하는 이익단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통합단체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가 세언협이다. 통합은 우리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대내외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전)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김소영 회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만큼 한국 정치권에서도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재외동포사회의 필요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동포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전) 재정적인 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세언협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니만큼 세언협의 수익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취재팀] 최윤주 기자

통합추진위원회

세한언 재언협, 두 단체의 통합을 이끈 주역들

2016년 10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통합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수차례 온오프라인 협의

세계한인언론인단체 양대산맥인 재언협과 세한언의 통합을 이끈 일등공신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다.

양단체 대표자들은 지난해 가을대회 이후 10월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대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3일 뒤인 20일에는 통추위를 구성하고 7개항으로 이뤄진 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추위는 공동선언문에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대한민국과의 유대강화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상기하고 새로운 도약과 미래창조를 위해 통합할 것을 공동 선언한다”고 밝혔다.

7개항의 통합선언을 보면 ▲ 재외동포언론인들의 화합과 역량강화 ▲ 재외동포 이익 대변 ▲ 동포청 설립과 복수국적 현안해결 ▲ 세계 한인공동체 역할 강화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글문화 보급 ▲ 차

세대 한인언론인 양성과 현역 언론인 재교육 ▲ 지구촌에 한국어 방송과 신문 전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추위는 통합 로드맵을 작성하고 온오프라인상의 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 봄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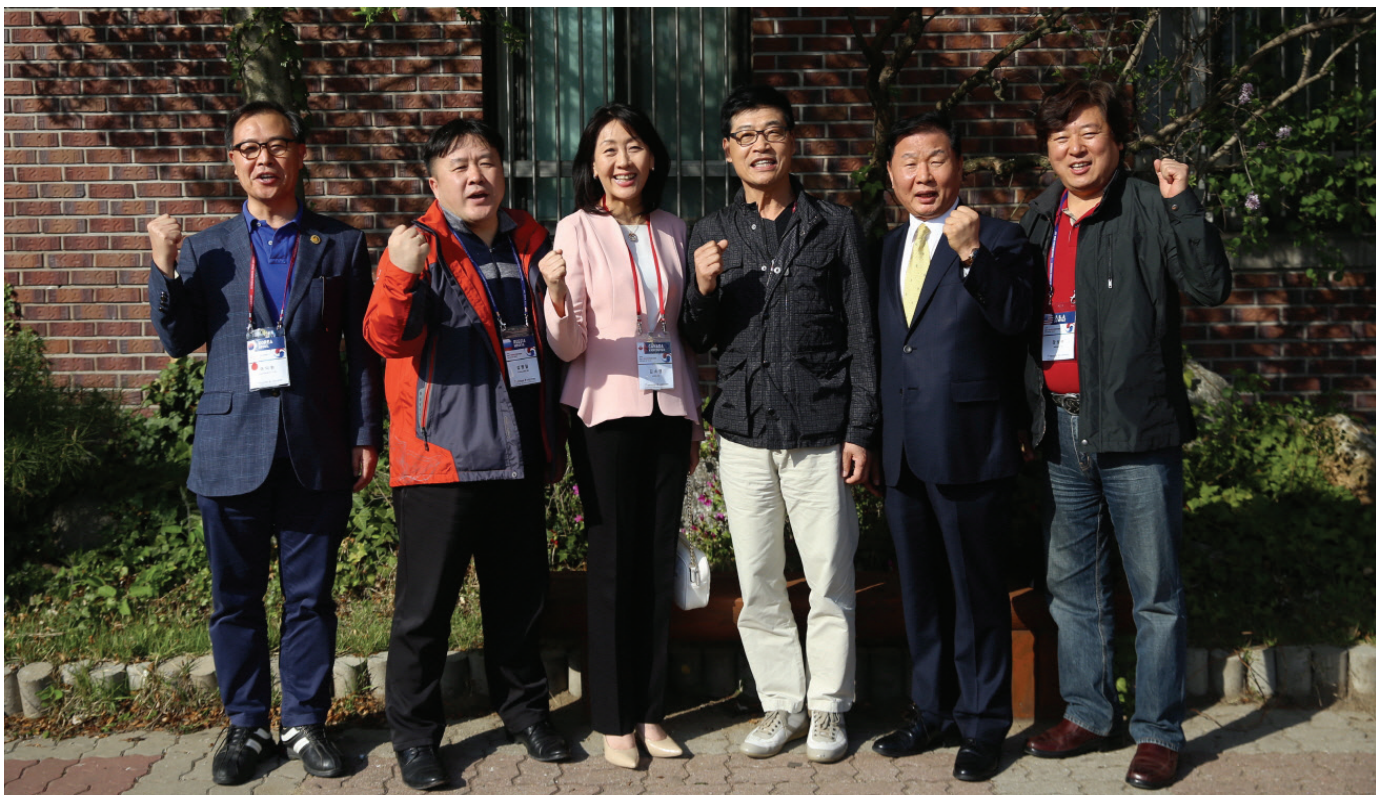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난관들과 수차례 만났다. 그때마다 통추위원들은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 다시는 통합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각오아래 모든 일들을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을 절충해 나갔다.

마침내 2017년 봄대회를 통합대회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통추위원들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재탄생한 세언협의 역사에 대통합의 주역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대통합을 이끈 통합추진위원들
(아래 사진 왼쪽부터)

- 여익환 / 세언협 사무총장
- 김원일 / 모스크바뉴스프레스 대표
- 김소영 / 밴쿠버중앙일보 대표
- 최성식 / 뉴스코리아 대표
- 전용창 / 태국국민광장 대표
- 강성수 / 시애틀코리아위클리 대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언론인들이 4월20일, 강릉 하키센터와 빙상경기장, 평창 설상경기장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한인언론인들 **솔향의 도시, 강릉 방문**

2018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 경포대와 정동진의 아름다움도 만끽
최명희 강릉 시장 만찬 주재 ... 세계한인언론인들, 강릉 홍보대사 요청

강릉방문 | 2017. 4. 20(목)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세계 26개국 87명의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 언론인들이 4월20일,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릉 하키센터와 빙상경기장, 평창 설상경기장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둘러봤다.

지난 2012년 10월, 강릉시 선교장에서 열린 ‘지차제축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회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찾은 강릉은 좀더 세련된 도시로 변모해 있었으며, 평창올림픽 주요 경기가 열리는 도시로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날 세언협 언론인들은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7 강릉 세계장애

인 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A-Pool’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3-4위전을 관람했다. 언론인들은 박빙의 대결을 지켜보며 응원에 열광했고, 한국이 3-2로 승리하며 자력으로 내년 평창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자, 함께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후 강릉빙상경기장 아이스아레나를 둘러보며 올림픽 준비상황과 경기장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언론인들은 관계자들의 설명 중간중간에 질문을 쏟아내며 동계 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동계 올림픽 준비 예산과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 등을 비롯해 빙상이 언제 어떻게 준비되는지, 올림픽

봄조성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관계자들을 진땀 빼게 했다.

미국 LA에서 온 유코피아 지역주 대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 이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외적으로 동계 올림픽 붐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 해외한인언론사들도 지역 언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적극 홍보해 나가자” 고 말했다.

저녁에는 최명희 강릉시장이 주재한 만찬에 참석해, 특별히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심상한 회를 먹으며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2018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향후 30년 강릉 발전의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강릉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평창에 비해 강릉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강릉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인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께서 강릉의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만찬 후에 세언협 언론인들은 정동진의 선크루즈 호텔로 옮겨 정동진



최명희 강릉시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심상한 회를 먹으며 환담을 나눴다.

강릉시, 세계 언론인들 방문 적극적 유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강릉 도시브랜드 각인 중

의 밤바다와 동해의 일출을 만끽했다.

한편 강릉시는 해외한인언론인들의 초청을 통해 강릉의 문화체험을 통한 한류의 유지 및 발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언론인과 친선 교류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도전과 비전 꿈꾸는
세계한인언론인들,
통합과 화합의 기치 내걸고
활활 비상하라~

[사진/영상] 김길수 김종민 배영훈 안미향 이석수 기자





PHOTO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화보

하나된 마음 하나의 비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평창을 만나다!

60여 세계한인언론인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다짐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문에서 SNS 서포터즈 동참

평창올림픽 | 2017. 4. 21(금)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민족의 역량이고 국력신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대표 김소영 전용창, 이하 세언협) 회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민족의 역량이고 국력신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평창과 강릉의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국의 한국사회와 세계인의 갈등과 화합의 제전으로 승화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지난 4월 21일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60여 세언협 회원들은 4만 8천㎡ 규모로 우뚝 들어선 개막식장에 놀라면서 성공적 개최는 전 국민적 염원임을 확인했다.

이날 세언협 회원들은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7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A-Pool'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과 노르웨이의 3-4위전을 관람했다.

완벽한 경기장 시설 못지않은 경기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이번 대회는, 외관상으로 잘 갖추어졌으나 국민적 홍보와 참여가 미흡함이 적지 않아 보였다.

이에 김소영 공동회장은 “5대양 6대주에서 평창스포츠타운을 찾아온 60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은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소명감을 느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회원들이 지구촌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흥구 평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내년 2월 9일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각종 테스트이벤트에서 드

러난 미흡한 점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국내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NHL(National Hockey League)은 “올림픽 위원회(IOC)와의 논의 끝에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해 성공개최를 우려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메이저리그 개막전이라 광고와 중계권 등 NHL로서는 ‘대목’으로, 캐나다와 미주 지역의 30개팀이 소속된 NHL은 시즌을 중지하고 3주동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던 것.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조기대통령 선거 여파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조직위는 내우외환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성공개최에 사명감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20일 평창현장에서 세언협 회원들은 “우리는 평창동계 올림픽이 정치와 이념을 떠나 순수 스포츠 제전이 되길 응원한다”면서 “회원매체와 현지 언론사, 관련단체에게 평창을 홍보한다”,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가 된다”, “세언협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팀을 가동해 적극 지원한다”고 외쳤다.

이에 전용창 공동대표는 “세언협 회원들이 해당국가에서 평창홍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지구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불을 이루자”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정선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결의문

-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정치와 이념을 떠나 순수 스포츠 제전이 되길 응원한다.
- 우리는 회원매체와 현지 언론사, 관련단체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
-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가 된다.
-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팀을 가동해 적극 지원한다.

2017.4.20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특별취재 | 2017. 4. 26(수)

“OKTA 한인경제인대회,

고양시에서 화려한 개막”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대표단 참가... 경제성장 동반자 역할모색

전세계 73개국에서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는 한인무역인협회(이하 월드옥타, 임시의장 박기출) 주최의 '제 19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지난 26일(수)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됐다.

한국 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5개 지역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코트라와 고양시 관계자, 한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며 세계한인언론인의 위상을 높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 김소영)의 김소영 회장과 여익환 사무총장도 참석 해, 한인경제인들과 한인언론사들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박기출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마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시련을 맞이했다. 지금은 한국 정부의 수출 다변화 노력과 함께 해외경제인들도 힘을 합쳐 모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기여 이번대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고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한인 경제인



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양시에서 새로운 사업비전과 모델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고양시와 한인 경제인들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심수화 상무대독)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정훈 국회 해외동포무역 경제포럼회장, 김무성 바른정당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홍 코트라 사장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월드옥타는 개막식에서 글로벌 마케터 발대식을 진행했다. 글로벌 마케터란 해외에 거주하며 수출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월드옥타 회원을 말한다. 글로벌마케터들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수출점병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는 선서를 통해 옥타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짐했다.



전세계 73개국에서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는 한인무역인협회(이월드옥타) 주최의 제 19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지난 26일(수)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됐다.

월드옥타 측은 현재 53개국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글로벌마케터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올해 안으로 1000여명의 글로벌 마케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 경제발전’이라는 화두로 3박 4일간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상담부스가 설치됐고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불황극복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고양 국제문화도시 포럼, 특별강연, 한국 내 기업과 해외한인기업의 ‘수출친구맺기’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공동취재단] 안미향 기자





“12인의 독수리…공동취재단, 활짝 비상하다”

단장_이석수 | 김길수·김명근·김상욱·김종민·다니엘 오·배영훈·신성철·안미향·이경옥·정선·최윤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세계한인언론인대회’는 해가 갈수록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국내외 주요단체와 언론계, 지자체에서도 주목받는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날, 4.19에 발표된 대통합을 계기로 이제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전세계 한인 사회를 아우르는 구심체로 우뚝 서게 됐다.

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공동취재단(이하 공취단)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공취단은 행사의 모든 일정과 주요 내용들을 매일 기사와 사진, 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원사의 자체적인 보도는 물론, 국내외 언론사에도 배포해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12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공취단은 취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 1인이 주요 행사 중 하나를 전담해 현장취재, 인터뷰 등의 기사로 제작해 ‘세언협 공동취재단’이란 이름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공취단 이석수 단장은 “세언협은 전세계 한인언론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2회씩 모여 대규모 행사를 치루면 서도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협회의 계획과 비전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체의 풀기자단을 통해, 우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협회의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공취단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바쁜 일정 중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밤 늦게 숙소로 돌아와 자사의 신문 편집으로 바쁠텐데도, 책임감있게 임무를 완수해 준 공취단 기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재외동포정책 결의문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730만 재외동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다. 거주국가에서 축적된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선진화된 기술력을 확대해 나가는 재외동포사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또 다른 국력이다.

그러나 국토적 의미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 땅으로 환원시키는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 이러한 체제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 또다른 국력인 해외 동포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은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한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내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하다.

또한 해외 동포와 모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해외 한인언론 지원은 열악하다 못해 찬밥에 가깝다. 실제로 재외동포지원의 주무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해외한인언론 지원금은 한 해 약 7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 언론 지원법은 동포 언론사들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껍데기 뿐인 법으로 만들어졌고, 이마저 아무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이에 지난 19일(수) 역사적인 대 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세계 한인언론조직으로 출범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구세계한인언론인협의회, 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 730만 해외한인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73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청(처) 설치를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재외동포언론에 대한 정보 부재 속에 추진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과 해외 한인 언론의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3. 우리는 다음세대 한인 언론인 발굴을 통해 해외 한인언론의 미래상을 개척하고, 차세대 언론인 육성과 양성으로 해외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2017.4.20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재외선거 투표기간

기간 중 6일 이내 / 매일 08:00~17:00

4. 25 ~ 30

투표소 운영기간·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